

유대인, 금융 넘어 서비스산업까지 장악하다

유대인 경제사

흥익희 지음

“기계·전자공학의 발달이 빛이 난 이 기적은 한편으로 아메리카의 새로운 산업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미국 전기·방송회사 RCA 총 지배인 데이비드 사노프는 19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최초로 상업용 텔레비전을 선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15년 오늘날의 ‘라디오’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격적인 라디오 방송시대를 연 데 이어 TV미디어 시장을 개척하고 대중화시킨 인물이다.



미국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비롯해 라디오와 TV, 라스베이거스 관광산업, 백화점 유통업, IT산업의 공통점은 뭘까? 우선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개념을 창시한 ‘창의성’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토마스 에디슨, 데이비드 사노프, 벅시 시겔,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자리한다는 점이다.

흥익희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15년부터 펴내고 있는 ‘유대인 경제사’는 유대인을 매개로 세계사의 거대한 경제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나온 10권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장악’은 9권(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실)에 이은 현대 경제사 완결작이다. 저자는 1978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해 2010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32년간 근무하며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부딪치며 그들의 장단점을 눈여겨보았다.



유대인들은 금융산업을 넘어 글로벌 서비스산업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금융과 서비스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제간의 결제단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지키기 위해 유럽·일본 등과 끊임없이 ‘환율전쟁’을 벌인다.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은 1500여만 명. 세계 인구대비 0.2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까닭에 대해 미국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낯선 땅에서 늘 억압받아 생존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저자는 2부 ‘유대인이 주도한 미국의 환율전쟁’에서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벌인 ‘환율전쟁’을 자세하게 다룬다.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죽음도 ‘달러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고 한다. 후세인이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화로 팔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넘치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자는 3부 ‘우리 생활 속의 유대인’이라는 항목에서 1997년 한국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이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당시 IMF는 한국정부와 협상 끝에 550억 달러의 패키지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무장해제와 주요 경제정책의 감독권까지 틀어쥐었다.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유대계 펀드 등 외국 자본은 한국 우량 기업들을 값싸게 인수하거나 합병했다. 저자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본력을 이용해 외환위기 전후로 한국경제를 어떻게 주물렀는지 살펴본다.

이 책은 유대인을 매개로 고대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사를 독특한 시각으로 분석한다. 저자는 “우리가 유대인의 발자취를 알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유는 자명하다. 유대인이 오늘날 세계의 부와 권력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사가 세계의 경제사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을 파악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해답을 얻는 열쇠를 갖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한국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해법을 찾기 위해 손에 쥐어야 할 나침반 같은 책이다.

〈한스미디어·1만8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기발하고 우스꽝스럽고 낯설고 난해한 36가지 이야기

망상, 어(語)

김솔 지음

한편 한편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다음 작품이 궁금해진다. 김솔의 짧은 소설집에 담긴 36편의 ‘짧은 이야기’는 때론 기발하고, 우스꽝스럽고, 난해하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다.

광주 출신으로 한국일보 신춘문예 등



단 후 제3회 문지문학상, 제22회 김준성문학상, 제7회 젊은작가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김솔씨가 짧은 소설집 ‘망상, 어(語)’를 펴냈다.

시간, 공간, 국적, 성별 등이 뒤섞인 몽롱한 그의 글들은 ‘글로벌 이야기꾼’

(문학평론가 신수정)의 탄생을 알리는 지표다.

이야기의 소재는 작가가 오랫동안 수집해온 것들이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한 낯익은 이야기, 오랜 직장 생활과 외국 생활에서 경험한 웃지 못할 비애와 생경한 이야기를 표제작 ‘망상’을 담아 풀어냈다.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피리아’에 드러나는 송고한 죽음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소설 ‘오피리아’는 몽유병에 걸린 여성이 한밤중 강에서 수영하다 죽을 뻔 했다는 2012년 기사를 읽고 모티브를 얻어 써내려간 소설이다.

아르헨티나 전직 장관이 수도원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숨기려다 체포된 사실은 ‘가방’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아우슈비츠에서 철심년 만에 발견된 금반지에 얽힌 사연, 심오년 재북역중인 남자가 정자를 빼돌려 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근사한 소재가 됐다.

박순용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삽화는 글과 딱 어우러지면서 힘을 보탠다.

〈문학동네·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는 걷는다 끝 = 세계 최초의 실크로드 도보 여행자 베르나르 올리비에가 연인 베네딕트 플라테와 리옹에서 베로나까지 함께 한 여정의 기록. 베르나르 올리비에와 베네딕트 플라테는 2013년 8~9월에 리옹에서 베로나까지 900km를 걸었고, 2014년 7~10월에는 베로나에서 이스탄불까지 2000km를 걸었다. 첫 번째 여정은 베르나르의 글로만 기록했다가 이듬해 두 번째 여정부터는 베네딕트도 함께 글을 썼다.

〈효형출판·1만3000원〉

▲비우는 연습 =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보다 근본적인 정리 비결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세계가 존경하는 일본인 100’에 꼽힌 마스노 순요, 선(禪)을 수행하는 승려이자 정원 디자이너인 저자 마스노 순요는 ‘진짜 정리해야 할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강조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자주 사들이는 허세와 욕심, 집착을 비우는 방법, 몸·공간·생활을 정리하며 인생을 편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58가지 지혜를 전한다.

〈담앤북스·1만3000원〉

▲체 게바라의 100가지 말 = 피델 카스트와 함께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체 게바라의 각종 연설과 어록, 저서 속에서 주목할 만한 문구를 가려 뽑아 한 권으로 묶은 책. 한두 문장으로 구성된 체 게바라의 말과 그에 대한 사료적인 해설과 풍부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체 게바라의 혁명 정신과 진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르테·1만4000원〉

▲동물은 사랑하면 철학자가 된다 = 철학도에서 수의사가 된 우리아이동물병원 이원영 원장이 쓴 책. 반려인이자 수의사

새로 나온 책



인 저자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통해 반려동물을 집 안에 들이는 순간부터 각 단계별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등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각 장 말미에는 수의사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략히 정리해 실용성을 더했다. 봉헌 작가의 실제 이야기로 구성된 일러스트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문학고지서사·1만원〉

▲숫자 없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수학책 = 일본의 천재 인지과학자가 숫자와 수식이 아닌 세상살이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진짜 수학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수학적 사고의 힘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 도마 베치 박사야 말하는 ‘숫자 정보를 자유롭게 구축하여 한순간에 복잡한 세상을 심플하게 꿰뚫어보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 수식에 담긴 수학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진정한 의미로 현실 사회에서 활용하는 길을 배울 수 있다.

〈북클라우드·1만3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나톨 = 수많은 생쥐 이야기의 근간이 된 아나톨은 작가 이브 티투스에 의해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캐릭터다. 쥐를 좋아했던 작가는 다양한 생쥐 캐릭터를 만들어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주인공은 그림 작가인 폴 갈ardon과 함께 작업한 아나톨이다. 아나톨 시리즈는 애니메이션과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고전이 됐다.

〈미디어창비·1만2000원〉

▲가끔은 싸우기도 하는 거야 =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들 중 하나인 싸움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싸움이 벌어졌을 때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감정과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싸움을 하는 것보다 화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풀빛·1만1000원〉

▲엘리의 영동 발칙 유쾌한 학교 = 핀란드와 독일에서 국민 도서로 자리 잡은 책. 악의라고는 전혀 없는 천방지축 말쑥꾸러기 엘리와 친구들의 영동하고 귀여운 학교 생활과 열여덟 명의 악동들 감당해야 하는 담임 선생님의 고군분투가 유쾌하게 그려졌다.

〈사계절·9500원〉

▲1학년 3반 김승이입니다! = 1학년에 막 입학한 신입생 승이의 이야기. 학교의 규칙들에 대해 차츰 배워나가기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승이처럼 입학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응원과 위로를 해주는 1학년을 위한 책이다.

〈바람의아이들·9500원〉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상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0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생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서구 매월동 (장례식장) 토 2,911평, 건 1,362평 서광구역 1분 / 현장레식장 운영 연매출 약 60억 !! ▶감정가 116억 → 최저가 116억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지리) 총 룠 30개 (달방수의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